



'flow'

빛, 인간의 에너지

갤러리D, 전시영전...내달 2일까지

갤러리를 들어서면 하얀 백사장과 함께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라는 자연과 백사장 위를 오가는 파도, 그리고 시원한 사운드가 관람객을 바다 저편의 세계로 인도한다. 에어컨 바람이 마치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바닷바람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감성을 감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전시영씨 전시가 갤러리D의 초대로 8월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는 '인간의 빛'이다. 진짜는 수많은 종류의 빛과 인간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소통의 과정에서 새롭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빛으로' 포착해 영상과 사진, 회화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진짜의 대표 작업인 'Wave'와 지난해 제작한 아트카 'PEUGEOT 208' 등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Wave'는 동·서해안의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시원한 바닷소리과 바다를 조각한 입체구조 단상,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지는 백사장 같은 모래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미지에서는 바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듣고, 보고, 만지는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Flow' 시리즈는 전통 무용수가 LED 전등이 달린 옷을 입고 가야금 소리에 맞춰 춤의 잔상과 빛의 궤적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통찰력이 영상과 회화로 표현됐다. 전시장 밖에서는 지난해 아트광주2013에서 선보였던 아트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카이브 공간이 마련돼 있어 진짜의 다양한 작업들이 영상 등으로 소개된다. 설화수 윤조엔스 X Korean Art CF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협업 공연 다큐, 미디어 파사드 전시 다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진짜는 서울과 광주, 뉴욕에서 17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광주미술상, 광주신세계미술제 장려상, 하정웅청년작가상,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12년 '페스티벌 오! 광주-미디어아트' 예술 총감독을 지냈으며 최근 스포츠 스타, 기업 등과 함께 활발한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에 문화감성 공간 '보헤미안'을 오픈한 김남국 대표(왼쪽)와 kwakwooyoung 디렉터.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홍대 클럽처럼 광주서도 즐겨 보자고요”

문화감성공간 '보헤미안' 문 연 김남국 대표·kwakwooyoung 디렉터

충장로1가 입구 80석 공연장... 전시회·세미나도

“뮤지션·관객 위한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보헤미안(Bohemian)은 15세기 프랑스인이 체코 집시들을 이르던 말이다. 이후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악인들 역시 가장 꿈꾸는 게 보헤미안의 삶일지 모른다.

김남국(44) 대표와 kwakwooyoung(47) 디렉터는 오랫동안 음악 공연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음악 인생 20여년만에 그 로망은 현실이 됐다. 그리고, 꿈이 이뤄진 곳에 문화감성공간 '보헤미안'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보헤미안'은 도심 한복판,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밀러타운 지하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전까지 만화카페였던 곳이다. 노출 벽돌 등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 검은색 주조로 공간을 꾸렸다. 음향시설과 드럼 등을 갖춘 무대와 함께 80석 정도의 객석을 갖췄다. 의자를 모두 치우면 150명 정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탠딩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이라 연주자들의 고충을 잘 알죠. 음향적인 측면을 가장 신경썼습니다. 뮤지션들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관객들도 그만큼 즐길 수 있거

든요. 연주자가 불편하면 위축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없습디다. 그건 고스란히 관객 피해요. 뮤지션들이 이 공간에서는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목마름을 아니까요.”(김남국)

두 사람은 대학 동기다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kwakwooyoung은 스톤 여섯 되던 해 지역 노래 그룹 '꼬두메'에 들어가 활동했다. 이후 녹음실 '폴리폰'을 차리고 음반 녹음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인 사토 유키에가 이끄는 밴드 '곱창전골', 인디언 수니, 바닷프 로젝트 등의 앨범을 제작했다. 녹음실 이름을 '보헤미안'으로 바꿔 공연장과 함께 연계해 운영할 계획 이다. 사업을 하던 김씨는 직장인 밴드 '육성회' 멤버로도 활동중이다.

“관에서 일할 때마다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식대로, 우리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 보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 현장에서 뛰는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kwakwooyoung)

장소를 정하는 데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위치'였다. 무조건 유행인가 많은 시내쪽을 원했다.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는데 무엇보다 층고가 높아 울림도 좋고 공연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공간을

운영하는 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 걱정이 들기는 했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세 배 정도 비쌌으니까요. 한데 욕심이 나더러구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녀가면서 시설이 좋다고 다 한마디씩 하니깐 뿌듯했죠.”(kwakwooyoung)

아직 정식 오픈 전이지만 지역 밴드 '살랑'의 쇼케이스 무대가 열렸고 11일에는 '곱창전골'과 '이안 밴드'의 '보헤미안 오픈 전(前) 콘서트'가 진행됐다. 14일에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프레스 콜 행사 열렸고 주말에는 고등학생 밴드 '마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식 개관 프로그램은 오는 8월초부터 열 계획이며 고정적인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다.

두 사람은 젊은 음악인들을 격려하고 싶기도 하다.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젊은 뮤지션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앨범을 제작하고 프로모션을 해도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인디 레이블을 만들고 유통 루트도 찾아 보려한다.

두 사람은 '보헤미안'이 공연 뿐 아니라 전시회 세미나, 모임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경영상의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주류 등을 팔지 않기로 한 것도 초등학교생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다.

“저희같은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서 광주에도 음악하는 친구들, 창작하는 친구들이 이곳 저곳 공연장과 클럽에서 '순례'하면서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관객들이 티켓을 끊고 관람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홍대 소극장이나 클럽처럼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kwakwooyoung)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함축적 시어의 울림

김옥중 시조집 '금강초롱꽃' 펴내

시조시인 김옥중 씨가 다섯 번째 시조집 '금강초롱꽃'(고요아침)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단시조만을 엮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서정을 펼쳐 보인다. 단시조란 한 수로 한 편의 작품을 이룬 시로, 절제미와 압축미를 특징으로 한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이번 시조집에는 '봄비' '가시연꽃' '갈대의 고독' '살구꽃 피는 교향'과 같은 정감어린 작품들이 담겨 있다. 개개의 작품은 '작은 그릇'에 꼭 필요한 것만 정선해 담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오롯이 드러낸다.

시인은 단시조야말로 시조의 본령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함축적인 시어는 현란한 수사

와 비유와는 다른 울림을 준다. 이는 김 시인의 작품에 대해 “언어에 대한 명상이 얼마나 깊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힘을 느낀다”며 “청각·시각적 이미지의 절묘한 공감각적 배합은 마치 미당 서정주의 시를 듣게 하는 것 같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고 평한다. 김 시인은 1980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세숫대야 불속 풍경', '돌감나무' 등을 펴냈다.

김옥중 시조집 '금강초롱꽃' 펴내 /박성천기자skypark@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메금주 박주환